

## 독서범주의 구상 ; 무엇을 독서할 것인가?

진 교 훈

### 1. 머리말

무엇을 독서할 것인가? 하는 물음은 우선 독서의 목표와 목적이 정해진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연역되어 나올 물음이다. 이 물음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내용의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물음과도 직결되어 있다. 어떤 책은 적어도 누구나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양독서에서는 간단히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好學하고 독서하는 데서 아르키메데스 포인트와 같은 정해진 출발점이라든가 王道가 따로 있을 수 없겠기 때문이며 또 교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응답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양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말 사전에서는 교양은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넓은 지식을 쌓아 길러지는 마음의 윤택함”으로 기술되어 있다. 서구어에서는 교양은 라틴어 cultura에서 유래한다. 이 말은 colere (경작한다, 재배한다는 뜻)에서 나왔다. 희랍어에서는 교양을 파이데이아 (παιδεία, paideia)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어린이를 사람다운 어른으로 기른다는 뜻을 담고 있다. 독일어에서는 교양을 Bildung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自我의 完成, 즉 인간의 정신의 형성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났을 때 하나의 동물에

불과하고 또 황무지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마음을 정착해서 조화롭고 질서있고 開化된 지성으로 開發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교양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치체로(Cicero)에 의하면 교양은 마음밭(心田)을 개척해서 정신적 생산력을 이룩하는 것이며 끊임없이 참된 지혜를 사랑하며 추구해 마지 않는 것으로, 철학하는 정신, 즉 지혜의 사랑에서 얻어진다. 영국의 ‘퍼브릭 스쿨’의 창시자인 문예비평가 매슈 아놀드(Mathew Arnold)는 교양론의 근대적 고전인 「교양과 무질서」에서 교양을 “인간완성의 연구”라고 하고, 각자 타고난 능력을 개발하여 완성에 도달하려는 것이 인간의 理想이라고 했다. 따라서 교양은 “이 세상에서의 최선의 것”이며 인간이 그 理想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다. 그에 의하면 교양의 본질은 조화로운 인간, 사회전체의 人道에로의 확장, 있는 그대로의 존재보다 生成되어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외면적 완성보다 내면적 완성을 위한 노력 등이다. 따라서 아놀드는 교양을 조화롭고 원숙한 인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겠다. 아놀드는 그가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사회에서의 기성계급의 속물(Philistines)들을 혹평하면서 국가는 교양있는 지성인에게 위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公教育에서의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엘리어트(T.S.Eliot)는 culture를 개인적인 뜻으로는 교양을, 집단적인 뜻으로는 문화를 뜻한다고 보았다. 엘리어트에 의하면 전통과 질서가 문화의 중심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승된 문화의 터전 위에서만 교양을 형성할 수 있다. 전통과 질서의 거름없이 교양의 씨앗은 성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전통과 질서를 古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교양서적은 고전을 의미하고 교양교육은 고전읽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고전이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면서 그 가치가 검증된 작품”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 놀라움과 새로움, 때로는 감동과 감탄을, 때로는 이와 반대로 반발과 비판을 불러일으켜 그 과장이 오래도록 훗날까지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매아리쳐 큰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잠든 의식을 깨우쳐 주고 깨어난 의식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새롭게 문제삼게 하는 저서를 우리는 또한 고전이라 불리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전이란 인간존재와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 앞에 자기 자신과 함께 진지하게 서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추구의 의무를 정직하게 수락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감각적 유희와 공리성에 쩌들어 왜곡되어 버린 존재의 진실과 마주 서게 하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眞·善·美를 추구했던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것이며, 삶의 지표와 행동의 준거와 방식을 새로이 정립하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교양독서란 교양인, 즉 문화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자기형성과 自己反省과 비판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을 거치면서 그 가치가 검증된 古典과 인간의 創意性과 未來志向性을 복돋울 수 있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을 읽는 것이다.

## 2. 독서의 범주

철학에서는 범주를 논리학적 술어로 보고 범주란 사물의 개념을 분류함에 있어서 그 이상 일반화할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최고의 類概念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서 범주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근본개념에 의한 실재와 思惟의 근본형식을 가리키는데, 범주와 범주 사이에서는 서로 중복이 되지 않는 배타적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독서의 범주를 말할 때의 범주는 그러한 논리학적 의미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분류라고 해두기로 하자. 실제로 문학감상과 교양독서의 구별은 편의상 시도해 본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문학을

배제한 교양이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전읽기와 교양서적의 간격을 대부분 문학서적이 차지함으로써 문학서적 이외에도 읽어야 할 서적을 편의상 교양서적이라고 잠정적으로 불러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류했을 때에도 시, 소설, 희곡과 같은 픽션, 즉 좁은 의미의 문학은 교양과 구분이 될 수 있어도 위대한 사상가나 발명가의 자서전과 傳記, 철학적 단상이나 종교적 명상록, 무용이나 음악 등의 예술에 대한 해설을 문학감상에서 제외시키기는 실재로 곤란한 면이 있다. 원래 文·史·哲은 엄격히 구분될 수 없고 내용적으로 중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독서의 범주란 우리가 독서권장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어떤 部類의 책을 읽을 것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또 교양독서를 권장함에 있어서 국민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을 각각 어떤 기준에 둘 것이며, 실재로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의 독서수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아무도 자신있는 분명한 대답을 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여기서 독서의 범위와 분류에 대해서 기술할 때 가치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필자는 교양독서를 편의상 생활교육과 고전교양(Klassische Bildung)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의 청소년은 오늘날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거의 생활교육을 배울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한국의 청소년은 예절과 인간의 품위를 모르고 성장한다. 그래서 한국인은 '상업동물'로 전락하고 있으며 종종 외국에서 무례한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교양독서에서 이 점에 우리는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 1) 생활교육을 위한 독서

- 1) 인간은 의·식·주를 무시하고서는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옷과 음식과 住居에 관한 책들 ; 전통의상, 옷과 예절과 인간의 품위를 다룬 책.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와 음식에 대한 지혜가 담긴 책. 집의 의

미, 주거와 환경과 건축문제를 다룬 책. 그 밖에 家具를 중심으로 한 동서양의 工藝品에 관한 소개서 ; 의·식·주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전통문화의 보존에 관한 책 등. 예컨대, 한국의 전통자수, 한국의 木器, 歲時風俗記.

- 2) 예술이 없는 삶이란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무용, 음악, 회화, 조각, 연극, 사진, 영화 등에 관한 의의와 소개와 해설을 다룬 책, 특히 한국의 전통예술에 관한 이해를 돕는 책을 읽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아름다움을 누리고 예술을 이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업주의에 중독이 된 대중예술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피해를 경고하는 책들도 권장할 만하며 어떤 예술이 고급이고 어떤 예술이 저급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줄 수 있는 책들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톨스토이의 예술론, 로망 롤랑의 베토벤의 생애, 줄스밀러의 생애 등.

3) 健康과 衛生에 관한 책

의학상식, 예방의학의 기초서적, 保健과 衛生과 攝生을 다룬 책, 약의 남용을 경고하는 책, 간단한 식이요법을 다룬 책, 구급법, 호스피스 등을 다룬 책.

4) 健全한 놀이에 관한 책

어린이는 놀면서 자란다. 건전한 놀이 문화의 육성에는 청소년의 성장에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쾌하고 즐겁고 깨끗하고 밝고 공정한 놀이를 소개하거나 일깨워 줄 수 있는 책.

5) 자연보전과 생명존중에 관한 책

생명존중과 자연보전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몸에 익혀야 함은 물론이다. 동식물에 대한 사랑, 공해의 위험성, 자연자원의 소중함과 아끼는 법, 에너지와 물의 사용의 최소화, 폭력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들을 청소년에게 읽혀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하나밖에 없는 지구, 환경오염의 實例를 다룬 책 등.

6) 알기 쉽고 응용하기 쉬운 생활과학에 대한 책

집에서 사용하는 각종 전기 및 전자 제품의 보전 및 수리와 위험방지에 관한 책, 화공약품의 위험과 음식물의 상극작용을 밝힌 책 등. 工具 사용을 다룬 책. 우리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상식을 과학적으로 풀이한 책. 폐품활용 및 재생을 다룬 책 등.

2) 고전교양서적

여기서는 동양과 서양의 고전을 일단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어떤 내용의 책을 읽혀야 할 것인가만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다.

1) 철학에 관한 책

자기반성과 비판의식과 논리적인 사고를 함양시켜 줄 수 있는 책. 윤리학, 논리학, 미학의 기초를 다룬 책. 유학의 四書三經의 해설서, 명심보감, 동몽선습 등. 예컨대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 논리야 놀자 등.

2) 종교에 관한 책

종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신앙서 ; 그리스도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도교 등의 근본교지를 다룬 책들. 종교를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 종교적 수상록, 聖人傳記, 종교의 독단론을 경계한 책.

3) 위인 전기

여러 분야에서 大成한 위인들의 전기, 英雄傳.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뚜렷하게 남기지 않았으나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등.

4) 과학사에 관한 책

과학적 탐구와 발명을 촉구할 수 있는 책. 위대한 과학자들의 발명품에 대한 착안과정을 수록한 책. 여러 가지 과학, 화학, 생물, 물리 등의 변천과 발달을 다룬 책. 별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 의학

사의 기초를 다룬 책.

5) 역사에 관한 책

우리 나라와 이웃 나라와 먼 나라의 역사, 정치와 경제보다는 특히 문화사에 초점을 둔 책. 예컨대 홍사단 편, 작은 나라.

6) 지리에 관한 책

교과서와는 다르게 흥미를 북돋아 주는 각종의 지리서. 특히 生物地理와 환경지리 및 경제 지리서 등.

7) 기상에 관한 책

교과서보다는 재미있게 기상에 관한 상식을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책.

8) 여러 다른 나라의 풍속에 관한 책

종족중심주의를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다양한 것인가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책

9) 동식물의 생태에 관한 책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태계에 관한 책. 꽃말, 화훼, 조류, 동물, 곤충에 관한 책. 예컨대 파브르브의 곤충기 등.

10)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알기 쉽게 소개한 책

청소년의 불안과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11) 사회 생활을 하는 데 알아두어야 할 법과 경제 등의 이론을 알기

쉽게 소개한 책. 예컨대 법창야화 등.